



◇부불어 '어린이문화찾기' 답사모임 회원들이 김광호 금화사어린이회 지도법사로부터 통도사 석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절에 부도탑은 왜 세우나요?

#### 대불어 부산지구 '어린이 문화찾기' 행사

"영축총림이 뭐예요?" "부도탑은 왜 세운 건가요?"

13일 통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어린이회 지부연합회 부산지구(회장 지현 이하 부불어)의 '어린이 문화 찾기' 답사모임에서는 사람의 이모저모와 불교문화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김광호 금화사 어린이회 지도법사의 설명으로 진행된 이날 문화답사는 통도사 경내와 자장암 순례를 통해 불교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을 이끌어 냈다. 영축총림, 부도탑, 전각, 불화, 사찰 예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어린이 불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법사는 특히 불교설화를 결집한 흥미로운 이야기 형식으로 불교문화를 전달해 어린이들의 인기를 끌었다.

\*통도사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너

무 많이 배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다음에도 꼭 올래요." 이날 문화답사에 참여한 아이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새책 불자 33명이 참여한 이날 문화답사는 부불어가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한 첫 문화답사 모임으로 매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부산, 경남 일원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게 된다. 5월에는 김해 가야유적지, 6월에는 경주에 답사지로 선정하고 어린이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정종화 부불어 사무국장은 "어린이 문화 찾기는 자연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되찾은 모음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 포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051)817-7187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경북남서부

## 향교 30% 절터에 세웠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건물기단·주춧돌 등에 석탑부재 사용

경북 남서부지역에 남아있는 향교의 약 30%는 원래 절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최근 <경상북도의 향교 건축-남서부편>(유교건축총서 3집)을 발간했다. 문화재연구소는 한국건축역사학회(회장 이상해)와 공동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 39건에 대한 학술 조사를 2001년에 벌였고, 남서부지역 19곳에 대한 보고서를 먼저 냈다.

보고서에 수록된 19곳의 향교 가운데 원래 절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향교는 대구향교와 현풍향교, 청도향교, 상주향교, 고령향교, 성주향교 등 6곳. 이들 향교에는 건물의 기단이나 주춧돌에 석탑·석등의 부재가 들어가 있거나 불교관련 석재가 곳곳에 남아 있다.

현풍향교의 경우 8각 석등의 하대석이 향교의 중심건물인 대성전(공자의 위패를 모신 곳, 문화재자료 27호) 주춧돌(礎石)로 사용됐고 기단 면석에도 불교 관련 문양이 새겨진 석재가 군데군데 들어와 있다. 강학 장소인 명륜당의 주초석 일부에도 석탑 부재

가 쓰였고, 불상의 대좌와 석탑 부재 등이 남아 있어 원래 절터였음을 알 수 있다.

대구향교의 대성전(문화재자료 1호)은 이번 조사에서 보물 616호로 지정된 영천향교 대성전과 비슷한 시기인 17세기 초 양식으로 밝혀져 문화재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았는데, 여기에도 주춧돌의 일부가 석탑 부재다.

일대가 지방유형문화재 155호로 지정된 상

주향교는 대성전 기단에 석탑 부재가 들어 있고, 지방유형문화재 2076호인 청도향교에도 불교와 관련된 석재들이 많이 남아 있다.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 조상순 연구원은 "건물에 석탑 부재가 들어가 있거나 불교관련 문양이 새겨진 석재가 있는 경우 사찰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현풍향교는 대성전 기단에 불교 문양이 새겨진 석재가 들어 있어 절터로 추정된다.

### 보육 현실 점검·활성화 모색

#### 불교사회복지연, 25일 세미나

(사)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원장 혜충, 이하 연구원)은 25일 오후 2시 부산 국제신문 중앙관에서 '불교계 보육사업의 동향과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연구원 제3차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보육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종사자와 복지계의 학자가 참여해 학문적·인상적으로 불교계 보육의 현실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김미옥 옥련유치원장의 '불교계 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 1

연구발표에 이어 제2연구발표로 김광숙 삼성어린이집 원장의 '보육시설에서의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관한 연구' 제3연구발표에 이은희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불교계 영아 전담 보육에 관한 연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 불교대구교육원 이천

#### 명칭 대구불교교육대로

15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불교교육의 산실 '불교대구교육원'이 불교대구회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구불교교육대학'으로 명칭을 변경 새롭게 출범했다.

대구불교교육대학(학장 윤성스님)은 15일 대구시 남구 명덕 네거리에서 최근 개원한 불교대구회관 5층으로 이전하고 이전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박원구 기자



◇15일 밀양불교대학입학식에서 전 표창사 주지 진철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 불교교육불사 새바람... 밀양불교대 첫 입학식

밀양 불교에 교육 불사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밀양불교대학은 조계종 종단인가를 받고, 15일 첫 입학식을 봉행했다.

밀양 용궁사 주지 정무스님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밀양 흥제종 교감 하용식 교법사를 학장으로 운영하는 밀양불교대학은 불교교리, 불교역사, 불교문화, 포교방법론, 선사사 등의 내용으로 1년 과정으로 진행된다.

천미희 기자

### 지수·오심 등 다섯스님

#### 양산경찰서 경승 위촉

경남 양산경찰서는 10일 경승을 새롭게 위촉하고 불교를 통한 교화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날 위촉된 경승은 통도사 양산교당 주지 지수스님을 비롯 혜동스님(내원사 주지) 오심스님(통도사 포교국장), 선오스님(통도사 박물관), 광우스님(통도사 강원 강사) 등 5명으로 매월 두 차례의 법회와 상담 등을 통해 경찰관의 정신 교양 교육을 위해 활동한다.

천미희 기자

### 대구서 '저자거리 음악회'

#### 지장선원, 개원 7돌 기념

대구 동구시장에서 불교음악회가 열린다.

대구 지장선원(주지 지공)은 28일 오후 5시부터 대구시 동구 효목동 동구시장 내에서 '저자거리 음악회'를 개최한다.

지장선원 개원 7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반야전통불교무용단의 불교무용, 심진스님의 찬불가요공연, 민요한마당, 즉석 노래방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지장선원 주지 지공스님은 "저자거리에서 민중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3)744-0150 박원구 기자

### 연등만들기 시연회 열어

#### 삼광사, 신도 5백명 참석

16일,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 지관전은 봉축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기며 연등을 만드는 신도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스님, 간부, 각신행 단체 소속신도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등만들기 시연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각 신행회 별로 둘러앉아 연등을 만들며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는 불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

삼광사는 연등 만들기로 한껏 고조된 봉축 열기를 이어 24일 삼광사 봉축 음악제, 28일 삼광 효행상 시상 및 경묘잔치를 비롯,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불우 시설 위문 등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종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 안국평화의 종·종각 기공

#### 안국선원, 을지부대서

부산 안국선원(선원장 수불)은 8일 동부전선 을지부대에서 안국평화의 종 및 종각 기공식을 봉행했다.

제 4공급이 발결된 최전방 을지전망대 내에 설치되는 안국 평화의 종 불사는 지난해 8월 이 부대를 위문 방문한 인연으로 시작되어 612관의 범종과 목조육각기와의 종각, 일주문 등 총 1억 3천 여 만원의 불사비용으로 통일외의 협력을 담아 진행했다.

개토제에 이어 봉행된 이날 기공식에는 수불스님, 김진항 사단장장을 비롯 군장병, 신도 등 1백여명이 동참했다. 수불스님은 "평화의 종 건립 불사로 남북 통일이 하루빨리 성취되고 모든 중생계에 자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정확한 책으로 3년에 걸쳐  
검증되고 있습니다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정보완본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비싼만큼 그 값을 해냅니다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향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들어서는 사람에게 먼저 말할 내용들은 앞면에, 묻는 용건에 대한 즉답은 뒷면에 24가지 항목으로 제출시켜 놓았습니다.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 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五術之中帝王」,이요, 「神示」라고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지 한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들을 미리 알아 문열고 들어서는 사람(전화 온)에게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시간별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어떤 비밀한 사정을 안고 있는지
-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 그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어느시기에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아니면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반복되는 일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 男-女 관계인지 二男-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이나 음역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시서·국·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 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 찾을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은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는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가고 있는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볼 것인지
-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육임 신수비결(身數秘訣)

찾아온 시간이나 떠난 시간만 알아 해당국수를 펼치면, 1년 운세와 월별 길흉과 식구들의 특징 운세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신수도 육임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값 : 300,000원(설명비디오 포함)

사주나, 기론이나, 주역이나, 학락이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하루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미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입시 선거 구체적 승진 메에 입신 기술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책입니다.

- 포교원을 여십니까? ■ 독살림을 계획 하십니까?
- 할인전문천역자용 ■ 살림이 여의치 않습니까? ■ 오행을 몰라 애로를 겪습니까? 이책이 해결해 드립니다.
- 기론「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을 소지하신분은 80만원에 본 책과 교환에 드립니다. ● 호사 육임강의록(증보上下권) ₩410,000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수정정보완본 CD ₩2,000,000 ● 호사 육임비디오 ₩900,000 (28개)

각종 카드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값 : 2,50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